

## 화학비료 지원중단에 따른 변화와 영향



김창길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연구팀장

### 1. 화학비료 가격보조금 폐지 배경

비료는 작물에 양분을 공급해주거나 작물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로 식량증산에 있어 중요한 자재이다. 그러나 화학비료(비료공정 규격상 보통비료로 분류되고 있음)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과다 투입하는 경우 생태계로 유출되어 하천과 호수 등의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다.

먹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60년대의 경우 식량증산은 핵심적인 농업정책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민들의 농자재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1990년대 초반 걸프전 이후 유가 폭등으로 비료판매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자, 정부는 1991년 이후 농협에서 시장가격보다 낮게 농가에 판매하도록 하고 가격 손실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대표되는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사업”은 정부가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농가에 보급하고, 비료제조 원가와 제조원가에 적정이윤을 붙인 금액과의 차액을 정부가 비료업계에 보조금으로 비료계정에서 보전하는 제도이다.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차손 보전액은 2004년에 802억원으로 매년 약 800~1,300억원에 달해 그동안 총 1조 1,000억원 정도를 재정에서 충당하였다.

정부의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차손 보조는 식량증산이 절실했던 시기에 농산물생산비용을 절감시켜 증산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최근 OECD에서의 환경유해보조금 문제 논의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

〈표 1〉 화학비료 판매가격차손 재정지원 현황

| 구 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 공급량(천톤)   | 2,112   | 2,167  | 2,029  | 2,180  | 2,151  | 1,979  |        |
| 가격차손      | 단가(원/톤) | 45,634 | 47,722 | 65,368 | 49,779 | 41,709 | 51,576 |
|           | 금액(억원)  | 964    | 1,034  | 1,326  | 1,085  | 897    | 1,020  |
| 재정보전액(억원) | 869     | 971    | 1,347  | 990    | 859    | 802    |        |

자료 : 농협중앙회, 「비료사업 통계요람」, 2005.

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료가격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부는 화학비료의 과다투입에 따른 환경부하를 줄이기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의 40% 수준의 감축목표로 정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림부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까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폐지하기로 국무조정실과 서면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농민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지속해오다 2005년 7월 1일부터 비로소 폐지하게 되었다.

## 2.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의 파급 영향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는 직접적으로 비료가격을 인상시켜 수요량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비료업계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농자재 투입비를 증가시켜 농가경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화학비료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축분 퇴비와 액비 등 유기질비료(비료공정 규격상 부산물비료로 분류됨)에 대한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금 폐지에 따른 직·간접 파급 영

향을 부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금 폐지는 농가의 화학비료 구입가격을 인상시키게 될 것이다. 화학비료 가격 보조금이 폐지되는 경우 비료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나 화학비료 가격은 대체로 약 15~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화학비료 구입비 증가는 농가경영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농가경영비 가운데 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 정도 되므로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는 농가경영비를 약 1~1.4% 정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화학비료 가격 인상은 단기적으로 화학비료 소비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화학비료(복합비료 기준)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분석 모형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0.15~0.3% 정도로 이는 만약 화학비료 가격이 10% 인상되는 경우 화학비료 소비량이 약 1.5~3% 정도 감소함을 의미한다. 화학비료의 수요는 가격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학비료 가격변화가 수요량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농가들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재인 축분 퇴비나 액비 등 부산물비료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화학비료 가



**화학비료 수요는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습관과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가격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계획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화학비료의 대체재로 축분 퇴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의 선호에 부합하는 양질의 축분 퇴비와 액비가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축분퇴비 등 유기질 비료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화학비료에 주로 의존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화학비료와 대체 가능한 부산물비료에 수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지만 이들 유기질비료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시비효과가 단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화학비료가 유기질비료로 대체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화학비료에 대한 수요 감소는 국내 화학비료 시장규모 감소로 이어져 줄어든 시장을 놓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업체간 경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의 매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상품개발이 활발해지고 대농민 서비스도 강화되는 등 품질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국내 화학비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화학비료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비료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째,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금 폐지는 OECD에서 환경유해 보조금으로 분류된 보조금의 폐지를 의미하므로 환경친화적이고

건전한 농업재정과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정책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운신의 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3. 결론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금 폐지는 위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화학비료를 사용해온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증가시켜 경영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또한 관련업계는 그동안 가격보조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영을 해왔으나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수요량 감소에 따른 시장규모 감소와 수입비료의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편으로는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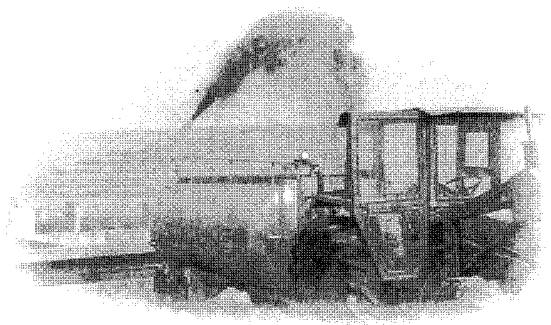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상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임을 수용하고, 그동안 지원된 화학비료 보조금에 상당하는 지원이 다시 유기질비료 확대 등 친환경비료시장 확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화학비료에 대한 유력한 대체재로 제시되고 있는 축분 퇴비와 액비 등 유기질 비료에 대한 관심 증가는 친환경축산 발전의 관건인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시사하고 있다. 농림부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감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축분 퇴비를 중심으로 한 유기질 비료소비의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물량과 지원액을 2005년에 70만톤에 245억원, 2006년에 120만톤에 420억원, 2007년에는 150만톤에 67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화학비료 수요는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습관과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가격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계획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화학비료의 대체재로 축분 퇴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의 선호에 부합하는 양질의 축분 퇴비와 액비가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경종농가의 입장에서는 화학비료보다 가격 측면에서나 양분관리 측면에서도 친환경 농자재인 축분 퇴비의 사용이 유리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축분 퇴비와 액비 등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농가단위 또는 지역단위 순환농업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술지원,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비료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국내 비료 시장이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면 비료산업 전반에 자극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비료소비량 감소와 최



근의 국제 원자재 및 유가상승 등으로 비료산업의 여건은 단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쟁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지속가능한 비료산업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양돈**



**요리 Pork!  
조리 Pork!**

### 자장부추잡채와 꽃빵

●재 료 돼지고기(안심) 300g, 소금, 후춧가루, 조미술 약간, 부추 300g, 대파 ½대, 통마늘 2쪽, 생강 1톨, 춘장 3큰술, 장국 ¼컵, 설탕 1작은술, 식용유 5큰술, 꽃빵 8개, 녹말 1큰술, 물 1큰술

#### ●만드는 법

- ① 돼지고기는 안심으로 준비하여 4cm 길이로 채썰어 소금, 후춧가루, 조미술을 뿌려 잠시 재워둡니다.
- ② 부추는 손질하여 돼지고기와 같은 길이로 자릅니다.
- ③ 대파는 흰 부분만 채썰고 통마늘과 생강도 곱게 채썹니다.
- ④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춘장을 넣고 볶습니다.
- ⑤ 춘장이 볶아지면 장국을 붓고 설탕을 넣어 끓여 자장소스를 만듭니다.
- ⑥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른 뒤 대파, 마늘, 생강채를 볶아 향을 내다가 돼지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 ⑦ 고기가 익으면 자장소스를 넣고 볶다가 부추를 넣고 재빨리 섞습니다.
- ⑧ 재료가 섞이면 녹말물을 넣고 재빨리 저어 농도를 맞춘 뒤 그릇에 담아 꽃빵과 함께 냅니다.

- 출처 : 싸비